

제172회 임시회 폐회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62억 심의 등



중랑구의회 제172회 임시회가 10월 10일 개최되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다. 10월 1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

였다. 마지막 날인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며, 이윤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5 분 자 유 발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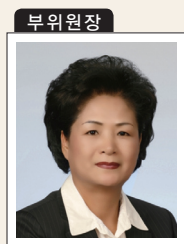
이윤재 의원(목1, 2동)

이윤재 의원은 “불법주정차단속 CCTV 운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각으로 구민 편에서 민원을 예방하고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그 방안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을 안내해 주는 주차알리미서비스 어플을 제공하고, 중식시간 두 시간 정도는 단속에서 제외시켜 마음껏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며, 주정차 사전단속알림서비스 도입으로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통한 원활한 소통로를 확보하는 등 선진교통문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위원장
신정일 의원



부위원장
김영숙 의원

위원장에 신정일, 부위원장에 김영숙 의원 선출

중랑구의회는 제172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2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

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신정일 의원, 부위원장에 김영숙 의원을 선출했다.

구의회는 10월 10일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구성결의안을 상정하여 이윤재, 최성식, 신정일, 김영숙, 조희종 의원 등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10월 10일부터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3219억 9736만원 대비 1.8% 증액된 45억 6796만원과 특별회계 기정예산 200억 724만원 대비 8.1% 증액된 16억 2535만원 등 총 61억 9331만원이다.

신정일 예결특위 위원장은 “구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추경예산안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였다”고 말했다.

‘탈북자 보호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황판남 의원

황판남 의원 발의... 만장일치 채택

중랑구의회는 지난 10월 10일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탈북자 보호 및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황판남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선양 등에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35명의 탈북자들이

강제 복송될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탈북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규탄 결의안은 ▶중랑구의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받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 및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들을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에게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희망할 경우 최대한 협조해 줄 것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 및 국제인권법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중국 정부와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제기구들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